

셀트리온,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

“美 관세리스크 해소… CMO 박차”

〈위탁생산〉

연내 ‘딜 클로징’ 마무리 전망
인수 후 7000억 이상 추가 투자
“美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셀트리온이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를 마무리 하며 미국 내 위탁생산(CMO) 생산시설을 확보했다.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미국 내 CMO 사업 확대에도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일라이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달 10월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진행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자산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각국에서 판단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심사는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딜 클로징(Deal Closing)’은 차질 없이 마무리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딜 클로징과 동시에 업무 단절 없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영역별 실무 파견자들을 집중 투입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현지 직원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미국 공장 인수를 통해 관세 리스크의 구조적 탈피, 생산 거점 다변화를 통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 미국 내 위탁생산(CMO) 사업 기회 확대라는 전략적 이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CMO 사업은 미국 내 의약품

생산 수요 확대 등 공급 변화를 기회 삼아 브랜치버그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미국 내 CMO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셀트리온의 오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경험과 자체 축적해온 신약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살려 향후 CMO 고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당장 셀트리온은 앞서 릴리와 협의한 CMO 계약에 따라 공장 인수 직후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금 조기 회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 예정인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은 약 4만5000평 부지의 대규모 캠퍼스로, 셀트리온은 인수 이후 약 1만 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에 최소 7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증설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모든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료하며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발판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의약품 생산·공급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마트, 3분기 영업이익 1514억… 35% ‘껍충’

〈전년동기 대비〉

3개 분기 실적 개선세 지속
누계 연결 영업이익 168% ↑

이마트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를 지속하며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는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순매출이 7조4008억원(전년 동기 대비 -1.4%)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97억원(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1514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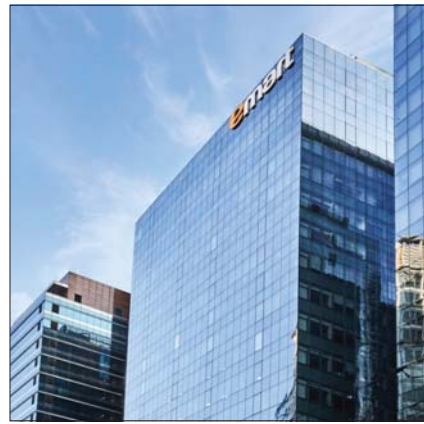
2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3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며, 3개 분기 누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1242억원 대비 167.6% 늘어난 3324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 총매출 4조5939억원(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 1135억원(전년 동기 대비 -7.6%)을 기록했다. 이는 추석 시점 차이 등의 일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 추진해 온 수익성 강화 기조가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통합 매입을 통한 원가 개선과 가격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상시 최저가 정책과 고객 중심의 공간 리뉴얼 전략이 시너지를 내며 고객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

또 해외 직소싱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가격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며 상품 혁신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문을 연 트레이더스 구월점은 해외 신상품 90여 종을 포함한 230여 종의 글로벌 상품을 선보였다.

이에 더해 스타필드 마켓을 중심으로 공간 혁신 리뉴얼을 추진하며 고객 방문 확대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다. 스타필드 마켓 리뉴얼 이후 9월 말까지 일산점은 매출이 전년 대비 66%, 고객 수가 110% 증가했으며, 동탄점과



이마트 본사 전경.

경산점 역시 각각 18%, 21% 매출 신장하며 리뉴얼 효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352억원 증가한 1조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1.6% 늘어난 395억원을 달성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올해 3개 분기 누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127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개점한 마곡점(2월)과 구월점(9월)이 모두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하며 신규 출점의 성공을 입증했다.

T스탠다드(T STANDARD)를 앞세운 전략이 핵심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T스탠다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자회사들도 연결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중심의 영업호조와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조선호텔엔리조트는 투숙률 상승과 객단가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신세계 L&B도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에 힘을 보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삼성에피스홀딩스, ‘에피스넥스랩’ 설립

바이오 신성장 사업 본격 추진
홍성원 부사장, 대표이사 겸직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미래 바이오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자회사 ‘에피스넥스랩(EPIS NexLab)’을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피스넥스랩은 에피스(EPIS)의 기업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Next)을 연구(Laboratory)하는 회사로서 전문성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상징하는 뜻을 담았다.

에피스넥스랩은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 출범에 따른 신설 자회사로 아미노산 결합체(펩타이드) 등



다양한분야에서 바이오 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 플랫폼 사업’은 확장성이 높은 요소기술을 개발해 다수의 바이오의약품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것으로, 특정 약물이나 적용증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환 분야에 적용 가능해 높은 사업 확장성을 지닌다.

에피스넥스랩은 플랫폼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 또는 기술 이전(라이선스 아웃) 등을 추진하

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에피스넥스랩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1본부장 홍성원 부사장(사진)이 겸직한다. 홍 부사장은 글로벌 제약사 출신의 바이오 연구개발 전문가로, 삼성에피스홀딩스 기타 비상무이사로서 지주회사의 이사회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원 대표는 “에피스넥스랩은 지주회사 산하의 안정적 사업 구조 속에서 삼성에피스홀딩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과감한 도전을 통한 바이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아르헨티나 의료진에 ‘나보타 시술법’ 전수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남미’ 진행

대웅제약은 지난 6일부터 2일간 아르헨티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 중남미(NMC LATA M)’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르헨티나 시장에서의 나보타 브랜드 입지 강화를 목표로 나보타의 임상적 차별성과 시술 노하우를 전파하고, 브랜드 충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독자 시술법인 ‘나보리프트(NaboLift)’와 ‘나보글로우(NaboGlow)’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됐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나보리프트는 나보타를 피부층과 근육층에 주사해 얼굴 윤곽 리프팅, 주름 개선 등 복합적인 미용 효과를 유도한다. 나보글로우의 경우 피부 퀄리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참석자들은 청담오아로피부과의 박지호·김창현 원장의 강연을 통해 나보타의 임상적 효과와 실제 시술 사례를 학습하고, 라이브 데모를 통해 생생한 시술 현장을 참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관 및 향남 나보타

공장 투어를 통해 대웅제약의 제조 품질 및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대 헬스케어 시장으로 인구 1000명당 성형 인구 수가 세계 2위일 정도로 미용·성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의료진 교육 강화와 MZ세대 소비자 마케팅을 양축으로 현지 시장의 다양성을 공략하고, 이를 통해 나보타가 아르헨티나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서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상 개선 효과”

한중일 생약학회 학술대회

KGC인삼소 홍삼오일 연구 결과 발표

홍삼오일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 증상을 50% 이상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생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홍삼오일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표 연사로 참석한 KGC인삼공사 김종한 R&D 본부 미래기술연구소 팀장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과, 홍삼오일을 섭취하면 전립선 비대 증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립선 비대 증상(중등도)을 가진 40세 이상 남성 88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홍삼오일 섭취군으로 나누어 실험 대상자의 각 수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12주동안 매일 홍삼오일 500mg 캡슐 2개를 1일 1회(1000mg/

일) 섭취 후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 S)의 변화, 전립선특이항원(PSA)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IPSS 총점은 기준선과 비교해 대조군이 3.7% 증가한 반면, 홍삼오일 섭취군은 50.5% 개선됐고, 요절박(소변을 참기 힘든 느낌) 69.2%, 빈뇨 65.0%, 배뇨지연 61.5%, 잔뇨감 53.9%, 배뇨중단 44.4%, 야간뇨 41.8%, 약한배뇨 37.1%, 생활만족도 24.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립선에서 생산되며 전립선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활용되는 PSA를 측정된 결과, 대조군은 기준선 대비 3.8% 증가한 반면, 홍삼오일 섭취군은 3.0% 감소했다.

KGC 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은 ‘홍삼오일’이라는 차별화된 소재 연구 통해 과학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정관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